

전북 말산업 제2의 도약 박차

도, 86억원 사업비 투자 5년마다 육성계획 수립

전라북도는 성장잠재력과 부가가치가 높은 말산업 육성을 위해 2019년 8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말산업 특구 2년차 사업, 학생승마체험 지원 사업 등 말산업 육성 및 승마인구 저변 확대를 통한 승마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도는 그간 말산업 육성을 위해 2013년 전라북도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말산업 기초 인프라 구축을 위해 힘써왔다.

도는 정부의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2012~2016)과 연계해 2013년 전라북도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2013~2020)을 수립하였으며,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총 686억원을 투자하여 말산업 기반 시설을 구축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말산업 육성 및 승마 활성화에 노력해 왔다.

특히, 그간 노력의 성과로 2018. 7월에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 5개 시군이 전국 말산업 특구

로 지정이 되었으며, 2018~ 2019년 2년간 사업비 100억원을 확보하여 특구 지정 지역의 차별화된 말산업 기반 시설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올해 말산업특구(2년차), 학생승마체험 지원 및 전국승마대회 개최 등 8개 사업에 8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말산업 및 승마산업 활성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승마인구 저변 확대를 위하여 약 4천여명의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승마체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12억 9700만원을 지원하고, 5개소의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을 위하여 100백만원 지원 계획이며, 말산업 특구 지정과 연계하여 기존의 2개 전국승마대회 외에 전라북도 도지사배 전국승마대회를 신규 개최할 계획이다.

말산업 특구 지원예산은 올해 2년차 사업으로 60억원이 투자계획이며, 익산 재활승마인프라 구축, 김제 벽골제 말도파아체협관 조성, 완주 역참문화체험관 조성 및 전문승용마 사육시설 현대화 등의 사업에 투자될 계획이고, 상반기 중 기본계획 용역, 실시 설계 등 행정절차를 추진한 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4월 전북도의회 개최 기간에 말산업특구 5개 시군 도의원이 전북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발의해 의결되었으며, 지난 3일자로 공포되었다.

본 조례에는 도지사가 말산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했으며 말산업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으며, 그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명시했다.

전북도 이성재 축산과장은 "말산업은 1차 생산에서 3차 체험·관광까지 모두 아우르는 복합산업으로 향후 전북도가 말산업 분야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특히 이번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계기로 말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정책소통 플랫폼 '전북 소통대로' 시연회가 13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실시된 가운데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시민대표들이 제막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민이 생각하고 희망하는 대로”

전북 소통대로 정식 오픈... 아이디어 공유·토론 등 온라인 정책대화 플랫폼 구축... 의견수렴 한층 강화

전북도가 도민의 다양한 생각이 자유롭게 제안되어 도민들과 함께 나누고, 모아 정책으로 펼치기 위한 온라인 정책대화 플랫폼 '전북 소통대로(疏通大路)'를 구축·오픈했다.

전북도가 이번에 새롭게 구축한 '전북 소통대로' 시스템은 정책제안 과정에 도민 누구나 참여해 제안을 올리고 공감 및 토론 등이 가능한 쌍방향이며, 접근이 쉽고 정책소통의 장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PC와 스마트폰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북 소통대로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자유제안'에서는 도민이 아이디어를 올리고 다른 도민들과 자유롭게 공감 및 토론(댓글)의 장으로 50건 이상인 공감감이 있으면 도 소관부서에서 답변(검토결과 및 채택여부 등)을 게시하게 된다.

'전라북도가 묻습니다' 서비스는

전북도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계획, 집행, 완료)에서 도민들에게 찬반, 설문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메뉴이다.

'공모제안'은 특정한 주제를 갖고 도민의 아이디어를 공모한 후 선정·포상하는 서비스로 개인별 아이디어는 비공개로 관리된다.

'정책 모니터링'은 플랫폼 운영 통계와 정책의 실행여부를 도민에게 다시 알려주는 피드백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도는 13일 새롭게 선보인 정책소통 플랫폼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에 첫 번째로 자유제안을 올린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오픈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첫 번째 제안자는 "세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의 교통안전에 위해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옐로우카펫, 노란정지선, 노란발자국 등의 교통

안전 디자인 설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으며, 전북도 처리답변에서 송하진 지사는 "도정에 관심을 갖고 첫 번째 제안을 올려 주신데 대해 감사하다는 인사말과 함께 제안해 주신 교통안전 디자인 설치 사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한 도민의 제안내용과 전북도의 처리답변을 판넬로 제작하여 도민과 도지사가 교환하는 연출(퍼포먼스)이 있었다.

아울러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도 정책소통 플랫폼 이름을 '전북 소통대로(疏通大路)'라고 명명한 것은 "도민이 생각하고 희망하는 대로 정책이 실현되고, 도민과의 폭 넓고 다양한 소통을 위한 큰 길(大路)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며, "이번 '전북 소통대로' 시스템 오픈을 통해 전라북도는 도민 누구나 언제든지 창의적인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확대 된 만큼, 앞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온·오프라인으로 열린 도정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文 대통령, 정치권 변화 촉구 “낡은 이념 잣대 버려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취임 3년차를 맞아 정치권의 변화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세상은 크게 변하고 있지만 정치권이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며 “낡은 이념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달라진 것 같지 않다. 분단을 정치에 이용하는 낡은 이념의 잣대는 그만 버렸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평화라는 인류 보편의 이상, 민족의 열원, 국민의 희망을 실현하는 데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평화가 정착되고 한반도 신경제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는 변영의 한반도는 우리 모두의 희망이다. 그 희망을 향해 정치권이 한 배를 타고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내일을 부추기는 정치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며 “막말과 험한 말로 국민 협력을 부추기며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는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일하지 않는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뿐”이라며 “험한 말의 경쟁이 아니라 좋은 정치로 경쟁하고 정책으로 평가받는 품격 있는 정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 앞으로 3년을 다짐하며 대통령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들께서 삶이 팍팍하고 고달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국민 여러분의 삶에 더욱 가까이 가겠다. 더 많은 희망을 주고, 더 밝은 미래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뉴시스

輿 여성의원들 “나경원, 최악의 여혐...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13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문빠’, ‘달창’ 등으로 지칭한 데 대해 “최악의 여성혐오 비하”라며 나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 여성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성명문을 내고 “막말을 넘어선 심각한 언어폭력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그것도 여성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일방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도 아닌, 여성 혐오를 조장하는 저급한 비속어를 사용해 국민에게 모욕감을 준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고 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입에 담지도 못할 수준의 역대급 막말을 하고서도 논란이 일자 용어의 구체적인 뜻을 모르고 무심코 사용했다고 해명하며 국민과 여성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대구에서 열린 한국당 장외집회에서 문 대통령 취임 2주년 대담을 언급하며 “KBS 기자가 (독재에 대해) 물어봤더니 ‘문빠’, ‘달창’ 이런 사람들한테 공격당하는 거 아니죠”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나 원내대표는 3시간30분만에 입장문을 내고 “문 대통령의 극단적 지지자를 지칭하는 과정에서 그 정확한 의미와 표현의 구체적 유래를 전혀 모르고 특정 단어를 썼다”며 공식 사과했다.

/뉴시스

임실치즈팜랜드, 관광기반 조성 박차... 세계적인 장미원 조성 기대

임실군이 연중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체류형 종합관광지를 만들기 위한 임실치즈팜랜드 관광기반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13일 군수실에서 임실치즈테마파크내 팜랜드 관광기반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과 지역발전 선도하기 위하여 '임실치즈팜랜드 관광기반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군은 35만명이 방문한 2018년 임실N치즈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그치지 않고 연중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98억원을 투입하여 2022년까지 임실치즈 관광기반시설인 유럽형테마공원 5만㎡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날 보고회에 심민 임실군수와 관계 부서장들은 임실치즈테마파크의 사업 확장과 관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치즈 문화와 주민 소득이 접목된 체류형 관광지인 팜랜드 관광기반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임실지역은 지리적으로 남쪽에 있으면서도 겨울철 최저온도가 영하 20℃ 이하로 추위에 강한 수목 및 장미품종을 선택하고, 임실치즈테마파크의 자연경관과 구조물에 잘 어울릴 수 있는 조경시설물 배치에 중점을 두고 기본 설계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앞으로 세계 우수 장미품종 2만주 이상이 식재된 임실치즈 팜랜드 관광기반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세계적인 장미원으로 명성을 얻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임실=진홍명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